

## ◇일상적인 최소절개를 이용한 대동맥판막수술

이재원, 송명근

울산의대 서울중앙병원

**배경 및 목적** : 1997년 9월부터 최소절개를 이용하여 대동맥판막을 치환하였으며, 1998년도에는 모든 대동맥판치환례를 상부흉골절개술이나 횡흉골절개술로 수술하였다. 이 환자들의 수술 중 및 후의 자료를 분석하여 최소절개술의 효용성을 검토하였다.

**방법** : 1997년 9월부터 1998년 8월까지 시행한 대동맥판 수술례 중, 27예에서 최소절개하에서 수술을 시행하였다. 연령이 55세이상의 관상동맥조영상이 정상인 환자 9명은 횡흉골절개를, 16예는 제3, 4늑간을 이용한 상부흉골절개를 이용하였다.

**결과** : 평균연령은  $51 \pm 14$ 세, 남녀비는 16:11이었으며 심폐기 가동 시간과 대동맥차단 시간은 각각  $99 \pm 32$ ,  $76 \pm 27$ 분이었다. 대동맥판막에 대한 수술은 기계판막이 19예, 조직판막이 5예, 동종이식편을 이용한 Bentall술식이 2예, 1예의 David 술식이 있었으며, 후부 대동맥판륜 확장술이 6예에서 시행되었다. 전례에서 21mm이상의 판막이 이식되었으며, 21mm가 7예, 23mm가 9예, 25mm가 5예, 그리고 27mm가 3예였다. 수술 사망례는 없었으며 2예에서 출혈에 의한 재수술이 있었다. 심초음파상 심박출지수는 술 전후에 잘 유지되었고, LVSD, LVDD, LVMI 는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술 후 판막의 혈압낙차는 최대/평균이  $27.5 \pm 9.8 / 15.5 \pm 7$  mmHg으로 측정되었다.

**결론** : 최소절개를 이용하여 모든 형태의 대동맥판막수술을 시행할 수 있었으며 이 절개로 인한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향후 모든 대동맥판막질환자에 대한 일상적 접근법으로서의 최소접근술은 매우 안전하고 유용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책임저자: 이재원(울산의대 서울중앙병원) 발표자: 이재원(울산의대 서울중앙병원)